

# 세계국채지수(WGBI) 편입

(해당 실: 국고국, 과: 국채과, 담당자: 박정상 사무관, 전화번호: 044-215-5132)

## I. 추진 배경

- 우리 국채시장은 규모 면에서 선진국 수준(12위)에 진입했으나,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 위상으로 인해 원화채 디스카운트 발생
  - 인구구조 변화 등 향후 재정수요 확대, 대내외 여건 등 감안시 원활한 정부 재원조달 위한 국채 수요저변 강화가 긴급
- ⇒ 국채시장 선진화를 국정과제\*로 지정하고, 선진 채권 기준으로 인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(WGBI) 편입 추진
  - \* "국정과제 19.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"의 세부과제에 포함

## II. 정책 내용

- '22.9월 WGBI 편입 관찰대상국 등재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위한 제도개선 추진·시행
  - 외국인 국채 비과세('23.1월), 국채통합계좌 개통('24.6월), 외국인 투자자등록제 폐지('23.12월), 외환시장 구조개선('24.7월) 등 시행
- ⇒ 지수 산출기관인 FTSE 러셀 및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10.9일 "WGBI 편입" 성공

## III. 성과 및 기대효과

- WGBI 편입으로 약 75조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유입 예상
  - 금리 안정으로 국민·기업·정부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과
    - \* 5~600억불 유입시 0.2~0.6%p 국채금리 인하효과(금융연) → 국채 이자비용 절감 등 재정건전성 에 기여
  - 대규모 지수 추종자금의 유입으로 국채 수요기반이 확충되어 향후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운용 가능 +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
    - \* WGBI 추종자금은 주로 장기 패시브 자금으로서 유출입 변동성이 낮고 예측가능성이 높음
  - 글로벌 시장內 위상 제고 → 신인도 향상, 금융·실물경제 발전 기여